

제9대 광주시의회 원구성에 관한 심중소회

의정단상

정다은

광주시의원



습도와 온도가 모두 높아 더욱 견디기 어려운 여름이다. 개인공간에서 에어컨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자각은 어쩌면 우리 때문에 후세대가 에어컨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또 사람들이 에어컨 없이 일과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창밖으로나 현장에서 마주할 때면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죄책감과 전기를 마음껏 써버린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에 입술을 앙다물고 만다. 정치인으로서 맞은 3번째 여름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런 죄책감이나 염치조차 드러낼 수 없는 처지이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의원으로서 했던 일이라면,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동료의원들을 만나는 일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첫째 주는 지지하는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도록 힘을 보태며 지냈다. 둘째 주는 지지하는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며 보냈고, 셋째 주는 스스로 운영위

원장이 되기 위하여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을 만나며 보냈다. 운영위원장 선거를 전후하여 상임위와 특위를 구성하면서 발생한 내홍도 겪었다.

도중에 나름 의미있는 일을 하였다면 5·18특별위원회의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를 찾아 관련 활동을 촉구하는 일 정도가 있지만, 내로라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사이에 시의성있게 해야 할 일이나 역할을 놓치고 말았다. 그렇기에 2024년의 7월은 시의원 4년의 임기 중 그야말로 흑역사라 할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기간 여러 사람과 생각과 사연을 공유하면서 정치를 함께 하고픈 동지를 얻었고, 구밀복검의 상황도 경험하였으니 정치인으로서 분명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또 원구성은 본디 의회와 집행부가 남은 임기 2년을 보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다. 그렇기에 원구성을 얼마나 진지하고 치열하게 하였는지, 그 과정이 의원 개개인의 마음에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도 의미가 있었다고 믿는다.

더불어 우리 광주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23명이 같은 시간 제각기 또는 함께 성장하였을 것이니 그것도 일정 부분의 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이

혼란의 상황을 지켜보며 무더위 속에서 일과 삶을 이어가야 했던 시민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가뜩이나 무더운 여름을 우리 의회가 더욱 열통이 터지게 하지는 않았던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중 광주시민으로부터 종종 박수를 받아온 제9대 의회였기에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독점의 폐해”, “감투싸움”, “진흙탕 싸움”. 이런 평가에 대해 억울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결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비판이기도 하다. 지난 3주간 이어진 원구성 과정 중 시민들의 무더위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었을 법한 장면을 제9대 의회가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치 없었던 일인 마냥 뻘뻘히 굴 수 없고, 만약 다음에 또다시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도 분명히 하려 한다.

지난하고 아름답지 못한 원구성 과정을 시민께 보여드려 부끄럽다. 뒤늦은 만큼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쓰겠다. 어렵게 구성한 의회인만큼 더 무겁게 일하겠다. 그렇게 제9대 의회는 전반기와 다름없이 시민과 함께 광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일(현지시각) 인도 케랄라주 와야나드 지역 초랄말라 마을 산사태 현장에서 인도 군인과 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위해 조립식 다리를 설치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와야나드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지금까지 사망자 숫자가 최소 276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227명이라고 전했다. **와야나드=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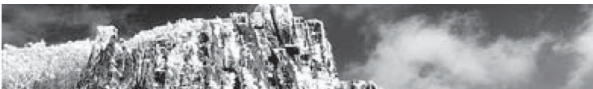
서석대

“자신을 위한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아름답고 힘이 있다.” 지난 2022년 타계한 이어령 선생이 마지막까지 천착했던 화두는 ‘눈물’이었다.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던 이어령.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말’을 노트에 써내려가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눈물 한 방울’이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작은 눈물방울이 품은 관용과 사랑에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봤다.” 2022년 6월 발간된 그의 유고집 ‘눈물 한 방울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에 나오는 이야기다.

“행복해지려거든 마음껏 울어라.”

지난 2005년 일본의 한 시사주간지가 30~40대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눈물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는 의외였다. 울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 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맡았던 연구진의 결론도 ‘눈물은 참을수록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오래 격렬하게 우는 것이 좋다. 마음껏 우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는 것이다.

심리학에 나오는 ‘다이에나 효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아름다운 눈물

1997년 8월,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영국은 눈물바다가 됐다. 이상한 것은 애도 기간 영국의 정신병원과 심리상담소에 우울증 환자의 방문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었다. 이후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다이애나의 사망을 슬퍼하며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정신과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가 우울증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밝혀졌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감동 등의 감정을 제어하는 눈물의 카타르시스 효과다.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중반으로 치닫으며 아쉬움과 회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는 광주 서구청 소속 한국 펜싱의 ‘판언니’ 강영미가 최선을 다한 눈물로 많은 이들을 울렸다. 양궁과 태권도, 유도 등의 종목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의 중압감을 털어낸 감격의 눈물로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었다. 아쉬움이 만든 통한의 눈물과 후회의 눈물, 감동의 눈물은 이어령 선생의 말처럼 아름답고 힘이 있다.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눈물마저 마음대로 흘리지 못했던 올림픽 선수단. 그들의 ‘아름다운 눈물’이 우리에게서 희망이면서 행복이다.

이용환 논설실장

정부, 호남권 신규발전 금지 당장 멈춰야

광주 ‘탄소중립’ 목표 차질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7년간 호남권 태양광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금지하면서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호남권의 변전소, 변압기 등 시설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유다. 수년째 태양광의 계통 연계율을 기다리는 전남·북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주의 경우 시내 17개의 변전소 여유용량이 2GW 규모라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5월 30일 합동회의를 열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호남권 태양광 사업의 계통 연계율을 2032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불합리함에도 정부는 태양광 사업 신청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한 달 전인 4월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밝혔다. 2033년까지 3조6431억 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양

광 신규발전 금지 조치로 탄소중립 계획은 물거품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주력해온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광주시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2022년 말 기준 320MW이다. 204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최소 1.2GW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매년 40MW씩의 태양광 신설이 필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시는 신규발전 허가 금지 조치가 개시되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태양광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는 담당 부서 전 직원이 매일 현장을 돌면서 광주시와 5개 구, 광주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유치 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의 호남권 태양광 신규설비 금지조치는 ‘계통 포화’로 지목하고 있지만 호남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가 수도권 등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서 생겨난 일이다. 정부가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못한 잘못을 호남에 떠넘기는 격이다. 정부는 당장 호남권 태양광 신규발전 금지 규제를 풀고 수도권과 연결할 전력망 확보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동서갈등 딛고 국립의대 설립 이뤄져야

도, 선정위 구성… 공청회도

전남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입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의대설립을 위한 용역 첫 단계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구성과 도민 공청회 일정이 확정됐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주관사인 에이티커니코리아(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은 1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도민공청회 일정을 공개했다. 공청회는 동·서·중부 권역별로 2차례씩, 모두 6차례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는 의대 설립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인원은 3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도민공청회는 설립방식, 사전심사, 평가심사위원회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의 9가지 세부계획 중 설립방식선정위원 15인 확정애 이은 두 번째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앞서 보건의료, 대학설립 운영, 경제성, 갈등 조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명으로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주영수 현 국립

중앙의료원장이 선정됐다.

전남 도내 의대 설립은 순탄치 않다. 동서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도는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곳을 후보지로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단일 의대 공모를 진행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는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가 진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 내부에서는 전남도가 후보지를 선정해야 의대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31일 전남 의대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정원 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최대 숙원인 의대 설립을 놓고 전남이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도내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도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의대유치를 위해서는 동서갈등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 일단 의대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연히 선정에 따라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는 건 자명한 일이다. 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순천시 등이 갈짓(之)자 행보를 멈춰야 할 것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